

제15호·2016년 6월 22일

미래전략연구본부 | 국제물류연구실
총괄·감수 | 이 성 우 실장

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'포'트



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

물류이슈

국제교통회랑 프리모리에-1, 프리모리에-2 사업, 매년 연해주 지역내총생산(GRP) 4-5% 성장 가능성 논의

- 국제교통회랑 프리모리에-1, 프리모리에-2 사업 개발이 연해주 지역 내 총 생산량(GRP)을 매년 4-5%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극동-바이칼지역 정부위원회 회의의 중요 안건으로 상정됨
 - 이번 안건은 추후 예정된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정부고위급회담에서 추가 협의 및 MOU 체결과 연계하여 더 심층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임
- 국제교통회랑 사업은 러 극동과 동북 3성에서 이루어지는 물류 운송이 프리모리에-1과 프리모리에-2를 이용할 경우 물류비용 및 리스크 감소를 통한 물류 효율성 증대에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봄
 -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지리적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물류루트의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아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류업자들에게 편의와 영리를 제공해야한다고 언급함
 -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물류비, 운송 시간 면에서 타 물류루트에 비해 특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 또한 인정하며, 타운송루트에 비해 수송거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운송 시간 및 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모순점을 러 세관운영의 비효율성이 야기하고 있다고도 함
- 한편으로 위의 문제점들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법의 출범이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전망함
 - 국제교통회랑 개발 사업 전체에 있어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이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, 자유항 관련 올해 10월 1일자로 발효되는 새 규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정적인 불편함을 축소시킬 것임(관세 면제, 외국인 투자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관 지원 등
 - 또한 모든 국제교통회랑 개발 사업은 민간의 투자에 의해 이루어져야한다고도 강조함

자료: <http://minvostokrazvitia.ru/> (검색일: 2016년 6월 21일)

이하림 연구원

051-797-4758, harimyi@kmi.re.kr



블라디보스톡시, 세계 최대 크루즈사 취항



자료: Google 지도, KMI 재작성

- 세계 최대 여객 크루즈호인 '코스타 빅토리아호(Costa Victoria)¹⁾'가 지난 5월 18일 블라디보스톡항에 첫 입항을 하였으며 약 2천명 이상의 관광객이 탑승하였음
 - '코스타 빅토리아호'는 올 3월 1,200명의 관광객을 실은 독일선사 '포닉스 라이즌(Phoenix Reisen)'의 알타니아(Artania)호, 5월 초에는 승객 600명을 태운 일본선사 '니폰 마루(Nippon Maru)'에 이어 블라디보스톡시가 유치한 세 번째 여객크루즈임
- 이 크루즈호는 한-일-러를 잇는 크루즈 전용 신항로로 이번 정기선 운항을 통해 새롭게 개척됨
 - 운항루트로 한국 속초항에서 출항하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, 일본에 홋카이도, 아오모리, 니이카타, 가나자와를 거쳐 부산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정임
 - 크루즈 정기운항 일정에 따라 관광객들은 하루 동안 블라디보스톡에 머물 수 있음
- 블라디보스톡시는 이 정기운항에 대해 작년 9월에 공식 발표를 한바 있음
 - 하지만 상기 지역 정기선 운항과 관련된 추후 정책은 한-일-러 관광객의 수요와 각국의 세관 당국 협조 등에 의해 판단될 것이라고 언급함

자료: <http://tass.ru/obschestvo/3290464>(검색일: 2016년 6월 21일)

이하림 연구원

051-797-4758, harimyj@kmi.re.kr

1) 코스타 빅토리아호는 이탈리아 선사인 코스타 크루즈(Costa Cruise)사 소속임